

광주경총,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운영 '호응'

고용부 수행기관...직장적응 지원
구직단념 청년발굴·심리상담 제공
성과 초과 달성·우수사례 등 발굴
진도서 '호남권 통합 워크숍' 성료

광주경총·지역총협회가 운영중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7일~8일 양일간 쏠비치 진도에서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고용청, 광주시와 함께 호남권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경총은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

진으로 성과 초과 달성 및 우수 사례 발굴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경총은 이를 계기로 호남권 통합 워크숍을 마련해 타 지역과의 사업연계, 사례 공유 및 차년도 사업추진방향 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수행 관계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업수행에 힘을 보탰다.

또 고용노동부 주무부서인 청년취업지원과에서 차년도 사업추진방향 설명과 궁금점 해소 등 행사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고용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지역 청년 구직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맞춤형 청년카페(인프라)를 구축해 구직단념 청년 발굴, 심리상담, 취업역량 강화 프로

그램 등을 제공, 구직단념 예방과 함께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 고용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입사 초년생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통해 CEO, 관리자 대상 리더 혁신, MZ세대 이해, 소통과 공감, 갈등관리 등의 주제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신입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직장예절, 팀협업 및 기본 오피스 교육 등을 지원해 조직적응, 애사심 향상, 기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수행 사례 공유를 위해 광주일자리스태이션(상무센터)에서 청년카페 운영 사례와 제주사회

적경제네트워크에서 직장적응 지원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사업 정보교류, 사업수행 애로사항 공유 등 네트워킹을 통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여러 사업수행 기관 중 특히 호남권에서 우수한 사업 역량을 보이고 있는 광주경총에서 광주일자리스태이션 동명센터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해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킹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사업 연계성 강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례 벤치마킹, 현장 목소리 전달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광주고용청 이현행

과장은 "이번 통합워크숍을 통해 지역 간의 사례 공유와 네트워킹으로 사업성과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일자리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청년성장프로젝트야 말로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카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고 관리자와 신입직원 간의 세대간 벽을 허물며 소통할 수 있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고용정책과 기업지원 실현에 광주경총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 '수능 합격 기원 팝업' 운영 광주신세계가 오는 14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 '수능 합격 기원 팝업스토어'를 열고 초콜릿부터 쿠키까지 다양한 선물 아이템을 선보인다. '리카 초콜릿'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두바이식 합격 초콜릿(2만6000원)을 판매한다. 또 대구에서 온 '말랑쫄떡'은 기분좋은 팔과 고소한 흑임자,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꿀, 블랙사파이어, 샤인머스켓 등 과일을 넣은 찹쌀도zzi(4000원)를 판매한다. 광주에서 초콜릿 전문점으로 유명한 '아코다'에서는 인절미 초코(5500원), 오랑제뜨(8000원), 카라멜 샌드 박스(2만7000원)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아 EV3, 獨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 선정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기아의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더 기아 EV3(이하 EV3)'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기아는 EV3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매체 '아우토티브'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공동 주관하는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독일 내 EV3의 본격적인 출고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룬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는 1976년부터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브'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그해 최고의 신차를 평가, 선정해 수여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 중 하나다.

올해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는 총 78대의 차량이 1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테스트를 거쳐 14개 카테고리의 최종 차량을 선정했다.

EV3는 유럽 WLTP 기준 605km의 충분한 1회 충전주행거리와 넉넉한 공간

성, 차급 이상의 다양한 편의사양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에 올랐다.

EV3는 유럽에서 연 6만 대 수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26개국 500여명에 이르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승회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유럽 시장에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EV3는 국내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1만 대 이상(1만 106대) 판매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국내에서 월 평균 2500대 이상의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박소영 기자

제 1145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11 31 33 37 44	3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30억5163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726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8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인자위 "인력수급·미래신산업 구축 총력"

내년 인력양성 등 사업계획 확정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내년 사업 목표로 설정, 추진한다.

10일 광주인자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차 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인자위 한상원 공동 위원장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노동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사민정을 비롯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장 및 임원 등 17명이 참석해 내년도 광주인자위 사업계획 및 수행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

성사업의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광주인자위는 내년에 '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거버넌스 구축'으로 미션을 설정하고 구직자 인력양성 1000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1600명, 고용창출 150명, 기업지원 100건, 기초·심층 수요조사 등을 세부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또한 광주지역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광주지역 훈련기관 공급현황과 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구직자,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공급방향을 제시했다.

한상원 공동위원장은 "광주인자위가 수행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미스매

치, 고용시장 이중구조 현상 등 고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대형쇼핑몰 입점 등 지역 이슈도 잘 반영해 내년도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인자위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기업훈련지원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매년 지역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률을 제고하며 광주지역 고용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문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62-350-5827)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삼성, 중남미 스마트싱스 영상 4000만뷰 돌파

1970년대 중남미 인기 시트콤 활용

삼성전자가 기기 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중남미 캠페인 영상이 유튜브, 메타, 틱톡 등 누적 조회수 4000만뷰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중남미 전 지역에서 삼성 스마트싱스 캠페인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싱스 연결성으로 인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영상은 1970년대 중남미에서 인기가 높았던 시트콤 '엘 차보 델 오쵸'를 패러디했다. 영상에서는 주인공 '차보'가 마녀의 집에 침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예고 없이 커튼이 스스로 닫히며, 실내 온도가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냉장고에 다가갈 때 불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등 집안 기기들이 연결되는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연출해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싱스는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에 맞춘 시나리오 생성이 가능해 편리하다.

영상에 등장하는 '무풍에어컨 벽걸이'



삼성전자의 기기 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중남미 캠페인 영상이 누적 조회수 4000만뷰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제공

는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 밖에서도 전원, 온도, 모드 제어 △인공지능이 상황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는 'AI 쾌적'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전기료를 관리하는 'AI 절약 모드'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문 열림 알림 제공 △온도 조절과 맞춤형 보관실의 모드 설정 △AI 절약 모드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대형 위젯을 통한 스마트싱스 대시보드를 제공, 32형 풀HD 터치 스크린에서 엔터테인먼트부터 스마트홈 기능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캠페인 영상은 독일 국제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브라질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0만뷰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에는 삼성 스마트싱스에 등록된 중남미 사용자 수와 기기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30%와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남미 지역에서 스마트싱스를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5개였던 스마트싱스 체험존은 현재 326개로 늘어났고, 올해 안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